

만화로 문화를 통역하는 통역사와

독자들의 오붓한 대화



이원복 교수의 또 다른 이름은 만화가이다. 그는 《먼나라 이웃나라》, 《자본주의 공산주의》 등 교양만화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 '이원복' 표 만화브랜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을 낳으면서 우리나라에 교양만화 열풍을 불러왔던 이원복 씨는 최근 《신의 나라 인간 나라》(종교, 신화, 철학 편)를 출간해 또 한번의 화제를 모았다. 엄숙하고 정결한 신의 세계를 익살맞고 능청스럽게 펼쳐나가는 그의 만화는 여전히 독자들을 즐거운 지의 세계로 이끈다. 인문적 교양의 갈증을 해소시키면서 만화의 즐거움도 주는 만화가 이원복과 세 명의 독자, 신현준(학생), 전혜리(학생), 안근혜(일러스트 프리랜서) 씨가 만났다.



왼쪽부터 전혜리, 안근혜, 이원복, 신현준.

안근혜 · 어른들은 만화에 대해 부정적이잖아요. 만화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지는 않으셨나요?

저희 집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7남매에 막내인데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은 모두 돈 벌기 바빴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막내가 뭘 하든 간섭할 여유가 없었죠. 거꾸로 보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경제적인 혜택을 못 받은 건 당시 우리세대 누구나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저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주변이 자유롭다는 건 사고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의미죠. 그런 점들이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을 주었죠. 1962년부터 아르바이트로 만화를 그렸는데 이 작업이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력을 갖고 있어요. 만화를 그릴 때는 지하도 가고, 우주도 갈 수 있죠. 만화작업은 종이, 펜, 연필만 있으면 되는 일이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한테 딱 맞는 일이었어요. 저는 만화가 인간 판타지의 최초 스케치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다양한 상상의 산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제 만화가 사라질 수 없다고 자부합니다.

신현준 · 만화장르는 독자들에게 재미를 주어야 하는데 철학, 신화, 종교를 이 장르로 다루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렇게 교양만화에 중점을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본래 만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화가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와 도구로 쓰이는 경우죠. 목적으로 쓰일 때는 그 자체의 예술성을 추구하는 만화들이 나오게 되는데 허영만, 이현세 씨의 만화들이 이 경우죠. 저는 만화를 통해 일정 정보와 지식을 전합니다. 만화가 저에게는 언어라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언어가 만화이고 이 언어로 역사, 신화, 철학 등 정보를 전달하는 게 교양만화죠. 사실 만화는 어려운 것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어요. 만화는 아무리 거룩한 내용을 담아도 만화니까 부담없이 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화는 다른 매체에 비해 책임이 적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여건을 통해 개그, 유머를 넣어서 다른 매체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루는 내용과 대상이 딱딱하고 소화하기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데생을 해도 어떻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신현준 · 《먼나라 이웃나라》도 그렇고 최근 《신의 나라 인간나라》의 경우에도 인문학적인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림작업과 글 작업을 하시는 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저는 있는 사실을 가져다가 재미있게 풀어놓는 이 작업을 편하게 생각해요. 스토리 만화처럼 기승전결을 극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쉽죠. 문제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유머러스하고, 쉽게 전달하느냐인데 그래서 시사적인 글들을 많이 봅니다. 하루 평균 3.4 시간 작업을 하는데 즐기면서 일하는 게 제 노하우입니다. 사실 책 작업보다는 신문연재가 정말 어려워요. 연재생활을 40년 정도 했는데 지금은 가끔적이면 안합니다. 지금은 전자메일이 있어서 쉽고 편하게 작품을 전송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외국여행한 달을 가면 한 달치를 미리 해놓고 가는 일이 허다했죠. 그렇지만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연재가 기초 중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전혜리 · 작품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연출이 바로 모든 작품의 기초라고 할 수 있죠. 저는 현재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산업미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도 기초 기술(skill)보다는 연출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고 일러스트를 한다 하면 숨쉴 좋은 작품, 매끄럽게 잘 그린 그림만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자신만의 개성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스타일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연출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가끔적이면 4학년 학생들 작품에 손을 안대려고 노력해요. 특히 그림 스타일은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의 의도대로 고치는 와중에 그 교수의 스타일만을 따르게 됩니다. 저는 최대한 학생의 개성을 존중해 주고 스타일을 키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제 그림과 다른 그림을 그리는 학생에게 학점을 좋게 주는 이유도 여기 있죠. (웃음)

전혜리 ·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늘 일관되게 추구하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저는 제가 하는 작업을 만화라는 언어로 문화를 통역한다고 규정해요. 모순된 표현이지만 만화라는 매체를 언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매체를 통해 역사, 철학, 사상, 경제 등 난해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쉽게 전하는



일이 내 일이죠.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만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작품에는 돌리, 광수와 같은 캐릭터가 없습니다. 캐릭터를 만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캐릭터를 만들면 그곳에 발이 잡히거든요. 《먼나라 이웃나라》에서도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충분히 상품화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저 자신이 발목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영구가 진지한 멜로드라마를 해도 이상할테고 돌리가 햄릿을 해도 이상한 것처럼 그 캐릭터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철학, 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이렇게 한정되어 버리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무캐릭터가 캐릭터인 작업을 하죠. 그런 점과 관련해서 저는 제 만화의 스타일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어느 순간 순정만화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안근혜 · 지금까지 나온 책들이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일부 독자들 사이에서는 《먼나라 이웃나라》의 그림 스타일이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경향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 스타일이 정말로 선생님의 스타일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모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화를 시작했던 때에는 10여 년 간 일본과 미국만화를 베껴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만화와 비슷한 부분이 많죠. 사실 독일로 유학을 간 이유 중 하나가 그림 스타일에 일본색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서 기초 데생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물론 일본 물을 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7,8년 지나니까 제 스타일이 찾아지더군요. 그렇게 나온 작품이 《먼나라 이웃나라》입니다. 그 전 작품들은 나도 100퍼센트 내 것이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먼나라 이웃나라》는 100퍼센트 제 작품입니다. 사실 사람 눈, 코, 입 그리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먼나라 이웃나라》 이전의 초창기작업들에는 만화 시작 당시 연습했던 것들이 저도 모르게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안근혜 · 《신의 나라 인간나라》 철학편을 완성하셨는데 철학편 작업을 하시면서 특별한 느낌이 있었는지요.

철학이 왜 어려운가를 알았어요. 철학은 환경과 시대의 산물이지 천재들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죠. 철학은 시대적 환경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데카르트 시대는 회의의 시대였는데 그것을 데카르트 개인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적

으로 회의의 시대가 온 것이죠. 그 전까지와는 다르게 완벽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지구가 둥글고 스스로 돈다는 게 증명이 되었고, 종교개혁이 되면서 신앙이 바뀌었죠. 환경적인 게 변하면서 지식인들이 여러 면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도 나온 거구요. 이번 작업을 하면서 환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을 저도 실감했고, 이 책 작업 역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혜리 · 요즘 학생들에게 만화기는 선망의 직업이거든요. 선생님의 직업을 동경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건 우리 세대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비약이라는 게 가능했거든요. 가령 신문팔이가 재벌이 되고 하는 그런 비약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약이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래도 틈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그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무기죠. 그림 그리는 일 역시 단순 능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특화된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상대 없는 분노감을 느끼며 살아요. 아버지는 맨주먹으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아버지 시대 사람들이 비약적으로 성공하는 걸 봤고, 전설적인 존재가 주변에 있기도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의 현실은 그것과 다르거든요. 세상은 너무도 완벽한 틀로 짜여 있으니까요. 저는 그림 그리는 친구들에게도 비약을 꿈꾸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원복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문에 만화연재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책 출간 시 그의 사인을 받으러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아줌마가 되어버린 팬이 많다. 그는 자녀들을 데리고 와 그의 새 책 출간을 축하하는 그들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는 《먼나라 이웃나라》 미국편과 각 나라의 세계사를 소개하는 책을 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의 바람은 우리 만화가 프랑스의 《아스테릭스》나 일본의 ‘아툼’처럼 대중적인 인지도를 넘어 문화적 자존심을 상징하는 산업이 되는 것이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